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36호 현대불교

29

2011년 5월 18일(음 4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간절히 믿을 때 모든 일은 안되는 게 없습니다

남들처럼 잘살아 봤으면...

문 가정은 꾸려나가야 하는데 돈벌이는 안되고 몸은 병이 들고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잘살아 봤으면 하고 늘 기도를 하는데 스님 가르침을 따르자면 이런 마음도 다 버려야 하는 건지요? 절에를 나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되니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아니,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수없이 돌아가는 게 이게 공했다는 뜻이거든요. 고정됨이 없이 막 돌아간다 이거죠. 지구가 맴돌고, 일분일초에 지구가 7바퀴 반씩 돌아가요. 어때요? 내가 조금 보냈어요? 보태기도 했을는지 모르죠. 그러니 지금 사람 한 생각이 변동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요 변덕 저 변덕 요 변덕 저 변덕 돌아가는 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변덕이 없으면 24시간 동안에 8시간을 일을 한다고 봅시다. 그 대신 요거 했다 조거 했다 조거 집었다 요거 집었다, 몸이 또 그렇게 요변덕을 떨어요. 아이, 보세요, 글썄, 요거 집어서 요리로 오고 저거 집어서 저리로 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요변덕을 하루 얼마씩 땀니까.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이리로 발 디뎠다 저리로 발 디뎠다... 아니, 상점에서 일할 때도 도심을 부리죠?

그러니 이게 그냥 있는 겁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냥 마음이 돌아가지 않으면 육체가 돌아가고 육체가 돌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돌아가고 운동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주인공이죠. 멧돌에 심봉 꽃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인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중심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중심이 없으면 미쳤다고 목석이라 그러합니다. 그러니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봉이라 이겁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차바퀴도 돌아가고 사람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 중심이 없다면 미친 것처럼 막 이리저리,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헤맬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저저 바쁘니까 난 못나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기에 달려 있지 아니, 누가 자기를 쫓아 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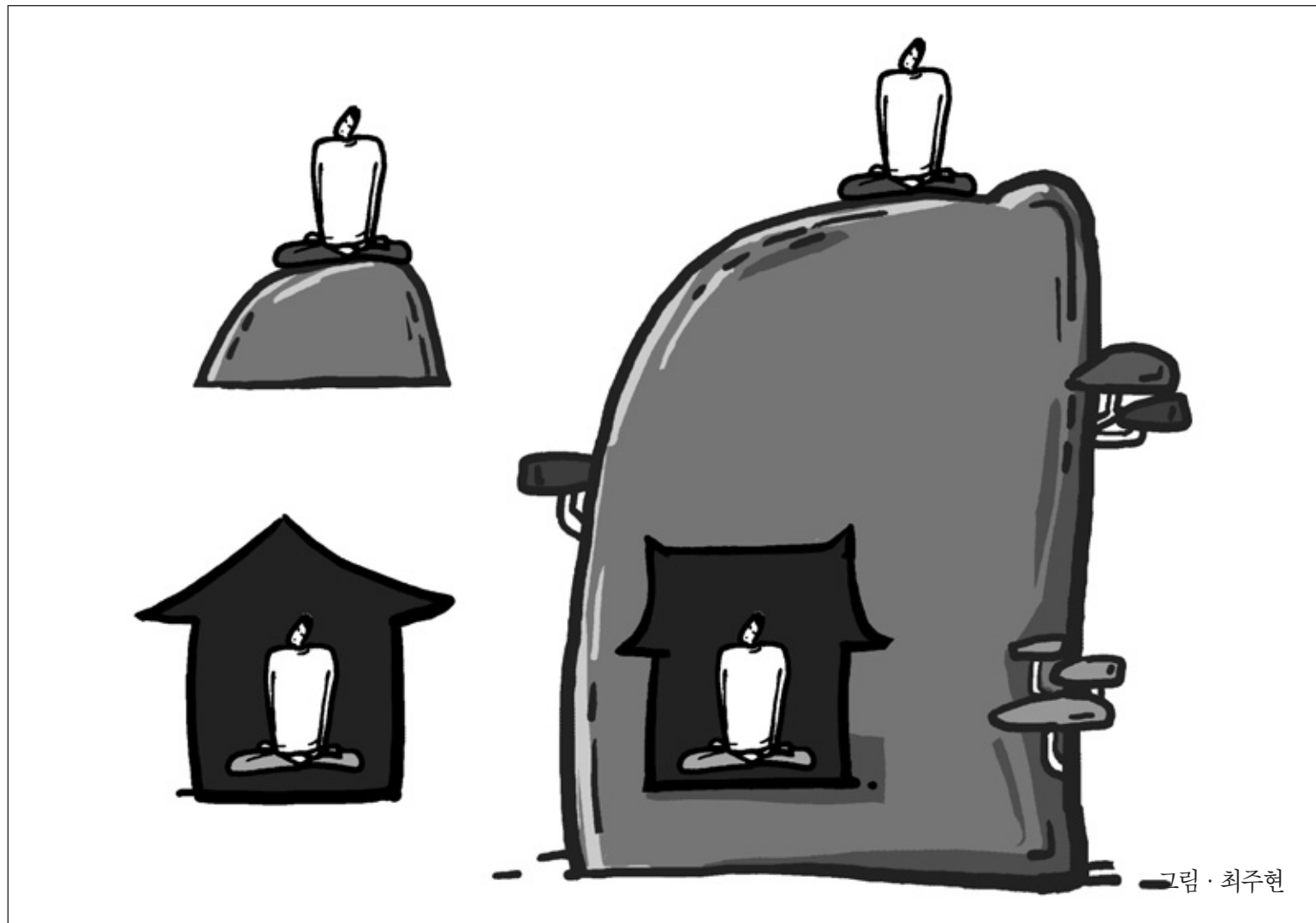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 때왔습니까? 왜, 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세 시간이든지 나올 때는 꼭 문을 닫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합니다. 문을 닫고 나와서 다녀가니까 그 시간, 덜 팔았던 시간을 저녁에 다 벌충했다고 그러합니다. 네?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이거를 배우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 할 때 물질이라는 거는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질을 내가 자꾸 좇아서 좇아도 안 되죠. 달아나가요. 그러니까 물질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 그게 좇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지금 세상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몸뚱이가 좇아다녀서 안 돼요. 앉아서 끌어들이는 세상이에요. 끌어들이기도 하고, 앉아서 모든 일을 책정을 다 해서 주인공에 맡겨서 다 해 놓고는 몸뚱이는 그때 슬슬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죠. 방편

입니다. 이게.

병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나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뭐 이런 것을 모두 지니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게 배낭입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병고도 나오고 액난도 나오고 그 고난도 나오고, 그저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거를 그저 나오는 대로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탁 거기다 맡겨 놓고, 좋게 나오는 건 감사하게 맡겨 놓고 언짢게 나오는 건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맡겨 놓고 이렇게 한다면 그 업보는, 병고든지 모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마음 주인공!' 하면, 모든 걸 맡겨 놓으면 이 몸 안에서 공작 하는 그 공

장장들이 말입니다, 모두 파워 일으켰던 것도, '하! 내 몸을 내가 죽일 순 없지.' 알았으니깐, 이제, 속에서도 알았던 말입니다, 뜻이 들어가니까, 통신이 됐으니까. '아! 내 몸을, 이거 내가 파워를 일으키면 내 회사가 망해, 그러면은 내 회사고 뭐고 다 망해.' 이러니까 자기 회사를 자기가 일으키려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길 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이고, 또,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가면 몸 건강하니 좋고, 마음 편안하니 좋고 고가 없어지니 좋고, 화복하니 좋고, 그리고 딱 사람 마음도 조절하니 좋고, 그래서 생활활고예요.

시간이 없어서 절에 못 온다고 하는데, 절에 오기만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도야, 일하는 것도 참선이라니까요. 잠자는 것도 참선이

요, 사랑하는 것도 참선이요, 어느 거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 그냥 사는 게 참선인데! 아니, 시간이 뭐 어찌 고저하고, 거기다가 왜 시간을 넣습니까? 아, 자는 것도 법이요, 모든 게 단테! 아, 중처럼 며칠 쥐고 목탁을 치라니 걱정입니까, 만날 여기 와서 꾸부리고 앉았으니까 걱정입니까? 마음 하나만 다잡고, 다지고 다져서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 공을 믿으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죽기 전에 진짜 의정을 하고 싶는데...

문 스님, 저의 할머니께서 이제 칠순이 넘으셨는데 몸 붓기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정을 참구하다가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서 멧돌에 가고 싶다 하시는데 참다운 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자기가 서서 죽든지 앉아 죽든지 누워서 죽든지 자기 마음대로겠죠. 옷 벗는 것도, 내가 전에 그랬죠. 이 얼을 모두 녹이지 못하고 그 애고(哀苦)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풍이 익지 못한 콩깍지와 같다. 익지 못한 콩깍지는 까도 속껍질이 찝찝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까도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파피서 질질 매고 그냥 죽네 사네 하고 온통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와 같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나 풍이 잘 익은 것은 탁 건드리기만 해도 풍이 그냥 썩 나옵니다. 그와 같애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늙었는데 뭐, 내가 이런 공부 해 뭐 해?' 하는데 바쁘게 돌아가니까 젊어서 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보다 외려 더 쉽게 젊어질 거니까 빨리 해야죠. 그러니 노인네든 젊은이든 애든 어른이든 남녀를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알아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애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만히 보면요, 스님네들이 그 도리를 몰라서,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도리를 몰라서 말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있는 것이 스님인 줄 알고 그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선 의정을 내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의정을 낸다

30면으로 계속

세얌레이 디팡카라 초청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

- 1964년 미안마 출생.
- 어린 시절부터 수행에 전념하여 여러 큰 스님 들로부터 명상지도를 받음.
- 대학 시절 파야옥 사야도께 가르침을 받아 깊은삼매를 이룸.
- 1990년부터 청정도론, 호흡관, 자비관, 부정관, 4대 요소 등에 대해 수행 지도함.
- 미국, 캐나다, 타이완, 영국, 홍콩 등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수행지도 중.



- 장 소 : 남양주시 봉인사 031)574-5585 www.bonginsa.net
 - 일 시 : 2011년 6월 30일 ~ 2011년 7월 9일 (9박 10일)
 - 동참금 : 22만원 (1박/2만원) 스님 10만원
입금 계좌: (예금주 봉인사) 농협 355-0000-5973-03
 - 준비물 : 개인세면 도구
- ※ 원하는 기간만큼 수행할 수 있으며 오후 불식(간단한 주스, 음료 제공)입니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할실 분에 한함)
- 승려중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절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받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입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KBS 과학카페 박연숙 원장 출연 (2010. 2. 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와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연숙 원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행복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모조리 다가오는 대로 근본자리에 다 놔버리세요

29면에서 계속

면 그런 의정이 의정이 아니죠. 스스로 의정이 아니라 그제 진짜 의정이요. 이런 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 화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또는 즐겁게 생각이 나는 건 또 어디서 올까? 자기가 스스로 의정이 아니라 의정이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는 것도 일부터 만들어 가지고 의정을 내는 건 의정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생각하면서 뒤고 뒤면서 생각하고, 부지런히 마음의 계발을 해서 이렇게 해오면이 우리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같이 그 공덕의 의미를 세밀히 알고 실천을 하는 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고 있고 병고 있다고 해서 금방 그것만 애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것만 앞장세우고 그냥 애 탄지탄하지 마시고 '야, 이런 수확이 어딤?' 이런 게 닦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겠다.' 한다면 고(苦)도 고가 아니에요.

어디 길을 건다가 지루할 때 말입니다.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차가 밀려서 지루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어떠한 좋은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 차가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몰라요. 길을 걸을 때도 지루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냥 말간히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게. 가고 싶은 마음이 가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가고 싶어지니까? 그렇다고 그냥 별거 아닌 거를 그냥 꼬투리잡아서 자주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모조리 다가오는 대로 거기다 놓고 신선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남이 안 하는 신선한 생각 말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애고 병고, 유전성 성격성 세균성, 어떠한 문제가 닦힌다 하더라도 흥하고 코웃음 탁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되어 되겠죠. 어떠한 게 닦히든 '히,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재료야 또 생겼네!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고 어떠한 고가 닦이지 않게 하는 것도 너야야. 체험하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타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료로 알고 공부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정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문) 한동안 교화에 나가본 적도 있고 종교에 관심이 있지만 불교는 약간 미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선뜻 다가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스

남께서는 좀 다르게 가르치고 계신 것 같은데 불교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전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물리가 터진다면 우주 전체를 우리가 탐험할 수도 있고 모든 보이지 않는 데의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두루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법이 된다 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한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이 종교를 믿으니까 거기 갈 수가 없다. 불교에 갈 수가 없다.' 이러는데, 목탁 두드리고 밥을 놓고 비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거를 불교라고 한 겁니다. 우리 세상 돌아가면서 말하고 살고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생활이 그냥 불교입니다.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다 서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면서 온 누리를 두루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습니다. 단 높은 게 있다면 알은 것도 있지마는 또 알은 게 있기 때문에 높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평등합니다. 그러니 그 평등의 도리를 우리가 터득한다면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도 '아, 이거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돌이 굴러가는 거를 보고도, 돌 뿌리를 탁 차고도 '아, 이거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바로 자기 한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거기서만이 감사하다고 할 때,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앞드러지면 자기가 일어나듯이, 바로 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끄는 것도 거기가 자리를 누르면 꺼집니다. 우리 텔레비전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또 안되는 것도 안되는 것이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진짜로 믿을 때, 간절히 믿을 때 모든 일은 안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실험해 보지도 않고, 믿어 보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이거는 자기 사랑으로 생각해서 무조건이 그냥 이진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됩니다. 한번 해 보세요.

고통 없이 살아가려면

문) 우리 인간은 왜 죽어 가는 이 육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지요? 저는 지금 몇 년째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집에서 근근이 이 마음의 도리를 의지해서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같은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고 고통 없이 살아가고 싶도록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작은 공씨를 밟고, 예를 들어서 맥의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생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썩은 몸입니다. 이 썩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썩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와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 몸에 정맥과 동맥이 서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믿어서 '뿌리야, 너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 보내 다오.' 하는 거나 진짜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썩어 생각하는 거를 뿌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몸통이 하나가 딱 쓰러졌다 이렇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침착하게 '네가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내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한데 그냥, 그 빈 손과 빈 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의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낮게 해야 할 텐데, 이거는 뭐 금방 '아이고, 주인공!' 이렇다가 금방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고 일이 됩니까? 청하지 않고도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잘못됨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일이 됩니까? 밥을 짓지 않고 쌀로 놓아두면 그냥 밥이 됩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넣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그냥 그와 같습니다.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 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요. 생각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집착만 하지 마시고 전체 주인공에, 말하자면 전체 주인공의 일이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맥의 몸통이 한 덩어리에 생명체들이 헤아릴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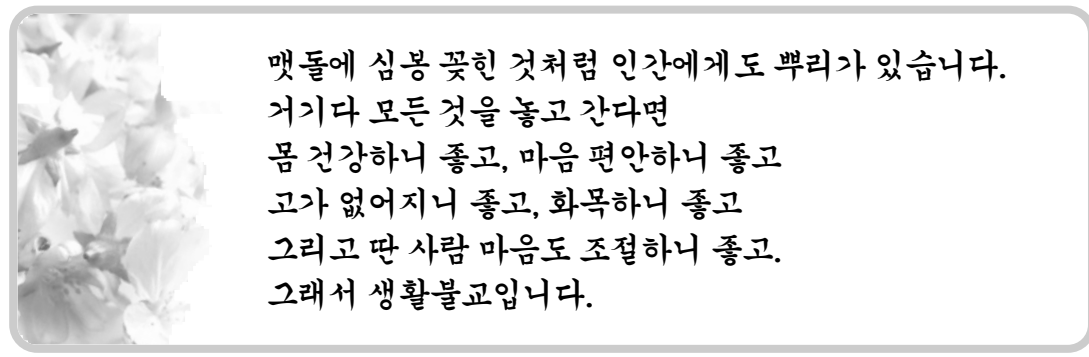
이 산다면 한 덩어리가 한마음으로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체지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좀 마음을 넉넉히 써서 '내가 끌고 가는 거 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좀 맡겨 봐요. 그리고 죽는 다 산다를 떠나 봐요. 좀. 네? 죽어든지 살리든지 내가 끌고 가는 거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삼자인 내가 그렇게 애쓰니까? 아, 생각해 봐요, 글썽. 자기가 형성이켜서 자기가 끌고 가는 집이 활어졌으면 집 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 집이 활어졌으면 이 집 지은 사람이 고쳐야지, 왜 이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안 그래요?

재가와 출가가 어떻게 다른지요?

문) 항상 일순간도 쉬지 않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공부라고 하셨는데, 수행을 해나가는 데에서, 재가 신도하고 스님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답) 다른 점이 있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가승과 입산 승려들이 공부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지도 않고 회지도 않는 이 순색을 이계, 중도 중심으로서 중용하는, 이게 감지도 않고 회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데서 "검은 게 울은냐, 흰 게 울은냐?" 그러니 "검은 것도 없고 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법좌를 갖다가 그냥 내리치더라고요. 근데 치킨 찢는 데 간 곳이 없어졌답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아셔야 할 겁니다. 아, 마. 그러니까 우리 재가승이나 출가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건 같은데 중생들은 모두 이 옷을 입고 머리를 깎아야 스님이 줄 알고 따르기 때문에 입산 제자를 받고 또 입산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또 재가승이 인제 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통달을 해서 맛있는, 정말 부של 거사도 유명했고 유마 거사도 유명했습니다. 그분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같이 아니었죠. 그랬으나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지만 사람이 그렇게 통달하지 않으면 그 재가승이 어려웠죠. 승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두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편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공부해 이 승가 해 가지고 통달했어도 모든 걸 자제하고 자기를 자기 지키고 나가는 것은 자기가 아무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 모르는 중생들이 또 달리 볼까 봐, 즉 말하자면 울파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또 아무렇게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려 생활이라는 건 처음에도 승려, 나중에 승려라야 모든 중생을 다, 무의 세계의 중생과 유의 세계의 중생을 다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맷돌에 심봉꽃처럼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몸 건강하니 좋고, 마음 편안하니 좋고 고가 없어지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그리고 딴 사람 마음도 조절하니 좋고, 그래서 생활불교입니다.

명체들이 전체 살고 있는데 맥은 그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관리인이며, 즉 말하자면 집합소박에는 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내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가 풀과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어 아예 작용을 해 줄 텐데 한마음이 돼 주지 않는다면 대뇌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대뇌에 통신이 되어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四丈)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음법이 대승법(大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한계가 따로 없어요. 우주가 한계가 있다. 삼천대천세계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소리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 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나쁜 게 들어오게 한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 놓아라. 또 잘에서 들어오는 건 '아, 잘 감사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 놓아라. 그래야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주 나온다 하고 말입니다.

천도제·예수제 용품은 동진기획·붓다쇼핑에서...

그동안 동진기획·붓다쇼핑을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가 1,000원
구성: 금강경다라니, 지장경다라니, 아미타경다라니, 신묘장구다라니, 천수다라니, 개발전, 상평통보, 만관, 신묘장구다라니, 지전, 봉투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 | | | |
|------------------------------------|--|--|------------------------------|
| A형-남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정가 1,500원 | A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정가 1,300원 | | |
| C형-남 할인가 950 (100벌 이상) 정가 1,200원 | D형-여 할인가 900 (100벌 이상) 정가 1,100원 | 동남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정가 1,000원 | 동녀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정가 800원 |
|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 예수제할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 이상) 정가 100,000 | 예수제할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 이상) 정가 120,000 | |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
| 금강경다라니 할인가 200원(600개 이상) 정가 300원 크기: 53x180mm | 한지점은 영가옷/위패 100개 30,000원 크기: 남자/여자/위패 | 종이신발(남/여) 1켤레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
| 축원카드 칼라 1000개 60원(2,000장 이상) 정가 100,000원(1000개) 크기: 268x190mm | 파라핀오일(A1, 8L) 12병 정가 53,000원 (하나양초) | 파라핀오일(B1, 8L) 12병 정가 58,000원 (하나양초) |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협: 121068-56-042256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엔탈삼/02)2004-8216
☎ 053-01-298062 (유)현대불교신문사